



미국 경기 지표 혼조 양상

김세중 선임연구원

- 미 상무부는 11월 소비지출이 전월대비 0.1% 증가했으며, 기업의 내구재 주문은 항공기 주문 증가로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3.8%의 증가했다고 발표함.
 - 11월 소비지출은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0.1% 증가에 그쳤는데, 이는 추수감사절 연휴기간에 쇼핑이 크게 증가했다는 리포트와 상반되는 결과임.
 - 기업의 내구재 주문은 3.8% 증가했으나 보잉사의 신규 항공기 주문 급증으로 인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, 항공기와 국방설비를 제외한 자본재 주문은 1.2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기업투자는 줄어든 것으로 해석됨.
 - 자본재 수요 감소는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,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2011년 말 종료되기 때문에 2012년에는 자본재 수요가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큼.

- 한편, 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한 12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월대비 9.3p 상승한 64.5를 기록하면서 소비 지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, 여전히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의미하는 90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.
 - 12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72.0을 기록한 2011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, 현재 경제상황과 경기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중 모두 11월에 비해 증가함.
 -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소비자 신뢰지수 개선이 크리스마스 시즌의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연말 휴가기간이 끝난 이후 다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함.
 - 톰슨로이터/미시건대학의 12월 소비자 지수도 전월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갤럽이 조사한 12월 소비자 신뢰지수도 2011년 상반기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11월 -45에서 -38로 개선됨.

(LA Times, 12/27 등)